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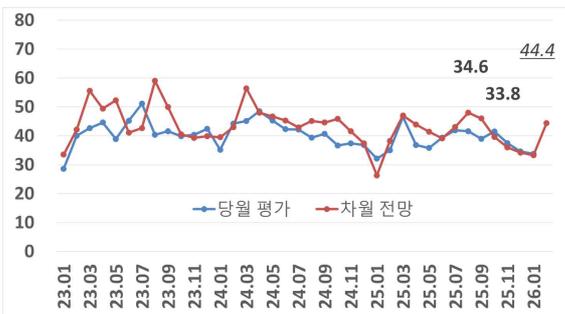
I. 2026년 1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2월 전망

■ 1월의 경기평가는 전월 수준, 차월은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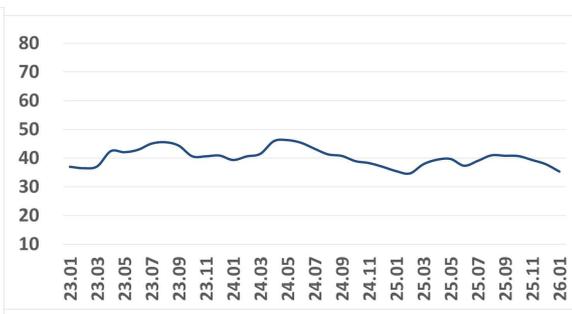
- 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3.8로 전월(34.6)과 유사했으며(-0.8p), 전년 동월(32.1)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1.7p). 차월(44.4)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10.6p) 이는 연초의 공사수주 증가에 따른 단기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 수주감소, 불충분한 공사비 책정, 자재비 및 기능인력 수급문제 등이 지적됨.
- 수도권은 28.3(28.6→28.3)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0.3p), 지방도 36.7(37.3→36.7)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0.6p).

〈표-1〉 2026년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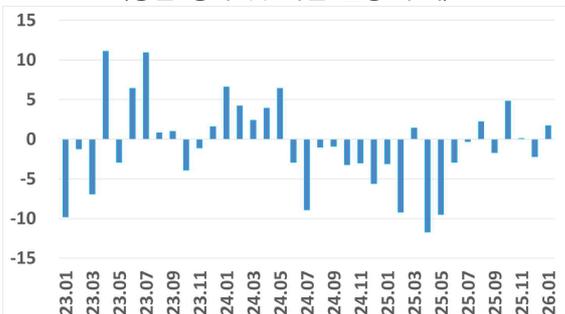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1월 평가	33.8	32.1	46.7	28.3	36.7	46.8
2026년 2월 전망	44.4	38.2	48.9	42.5	36.7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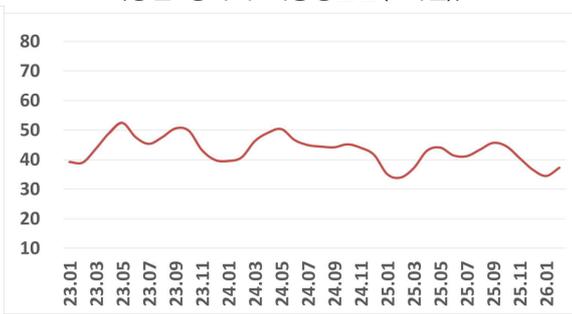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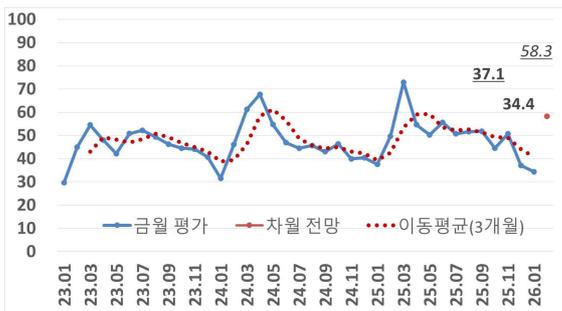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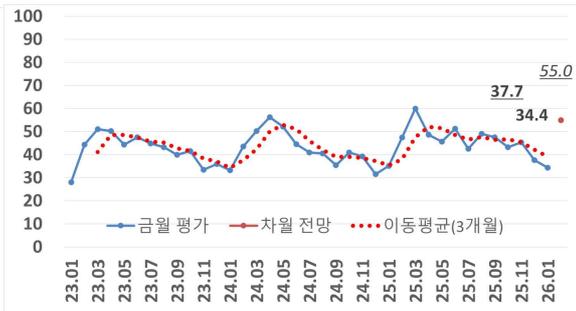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34.4(37.1→34.4)로 소폭 하락했으며(-2.7p) 전년 동월(37.6)에도 미치지 못했음(-3.2p). 하도급수주도 34.4(37.7→34.4)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3.3p). 이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요의 위축과 업계 내 양극화 등이 지속되면서 응답업체들의 경기 체감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9.0→55.6)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6.6p), 지방(31.8→25.5)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6.3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5.3→66.7)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1.4p). 지방(25.5→20.8)은 소폭 하락함(-4.7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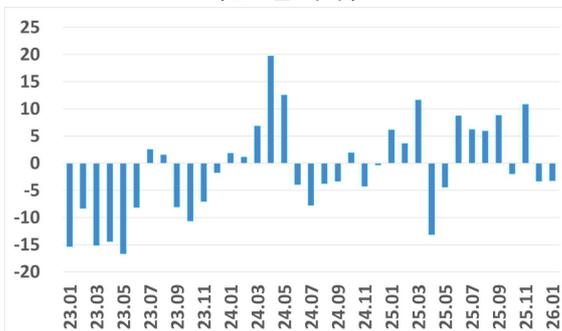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1월 평가	34.4	37.6	55.6	25.5	60.0	42.6
	2026년 2월 전망	58.3	45.5	88.9	45.3	93.3	61.7
하도급 수주	2026년 1월 평가	34.4	35.2	66.7	20.8	73.3	38.3
	2026년 2월 전망	55.0	40.6	91.1	39.6	93.3	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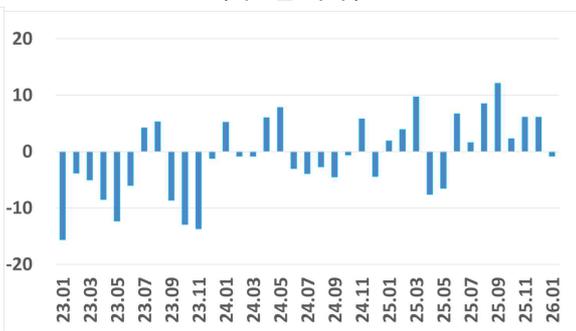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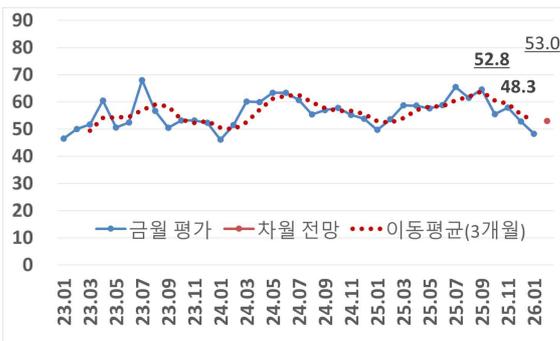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하락, 자금조달지수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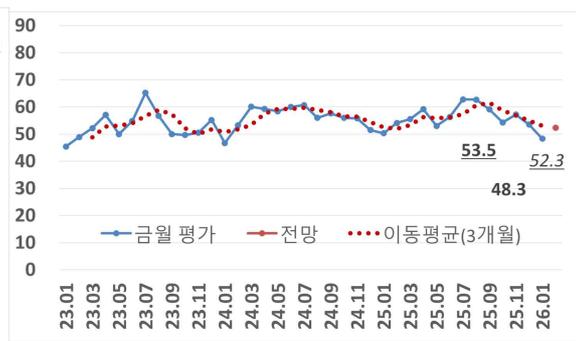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48.3(52.8→48.3)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4.5p), 차월(53.0)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4.7p). 일부 응답업체들은 여전히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미수금(공사대금의 지급지연을 포함) 문제를 지적함.
 - 수도권(53.1→57.8)은 소폭 상승했으며(+4.7p), 지방(52.7→44.3)은 전월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됨(-8.4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48.3(53.5→48.3)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5.2p), 전년 동월(50.3)보다도 낮았음(-2.0p). 차월(52.3)에는 일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4.0p).
 - 수도권(63.3→64.4)은 전월 수준(+1.1p), 지방(49.1→41.5)은 하락함(-7.6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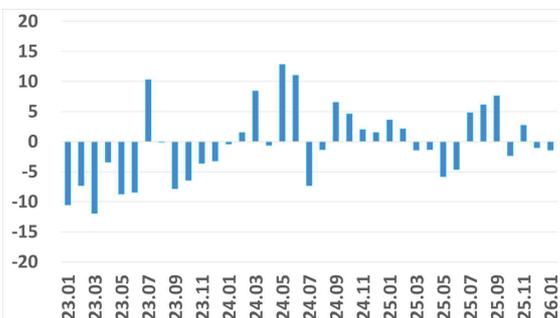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1월 평가	48.3	49.7	57.8	44.3	56.7	55.3
	2026년 2월 전망	53.0	50.9	66.7	47.2	66.7	57.4
자금조달	2026년 1월 평가	48.3	50.3	64.4	41.5	63.3	55.3
	2026년 2월 전망	52.3	50.9	66.7	46.2	66.7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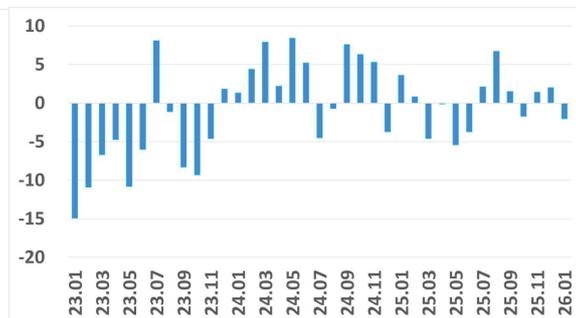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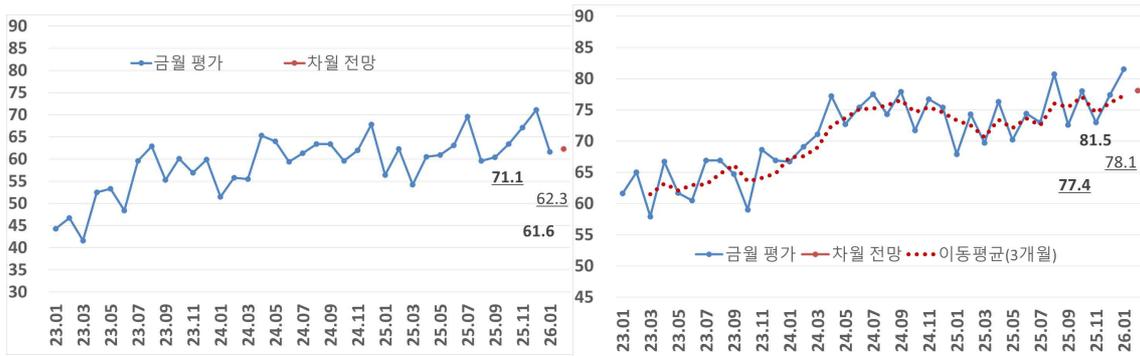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하락,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상승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1.6(71.1→61.6)으로 악화됨(-9.5p). 여전히 전년 동월(56.4)보다는 높지만(+5.2p), 인건비 변동에 따른 공사원가의 상승이 전문건설공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63.3→60.0)은 소폭 하락(-3.3p), 지방(74.5→62.3)은 하락함(-12.2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1.5(77.4→81.5)로 소폭 상승했으며(+4.1p), 전년 동월(67.9)보다 높았음(+13.6p). 다만 젊은 기술인력의 수급과 노조 관련 문제는 여전히 지적됨.
 - 수도권(65.3→68.9)은 소폭 상승(+3.6p), 지방(82.7→86.8)도 소폭 상승함(+4.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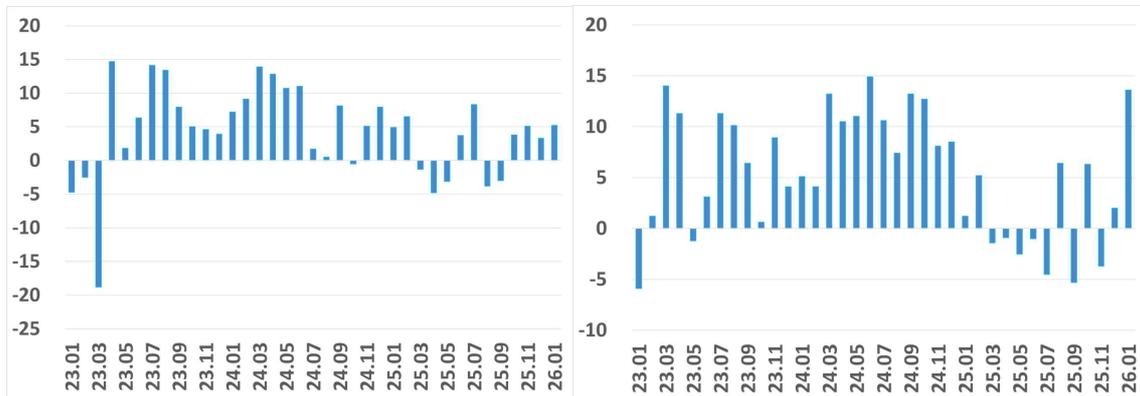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1월 평가	61.6	56.4	60.0	62.3	50.0	87.2
	2026년 2월 전망	62.3	51.5	46.7	68.9	36.7	83.0
인력수급	2026년 1월 평가	81.5	67.9	68.9	86.8	66.7	104.3
	2026년 2월 전망	78.1	63.6	66.7	83.0	66.7	100.0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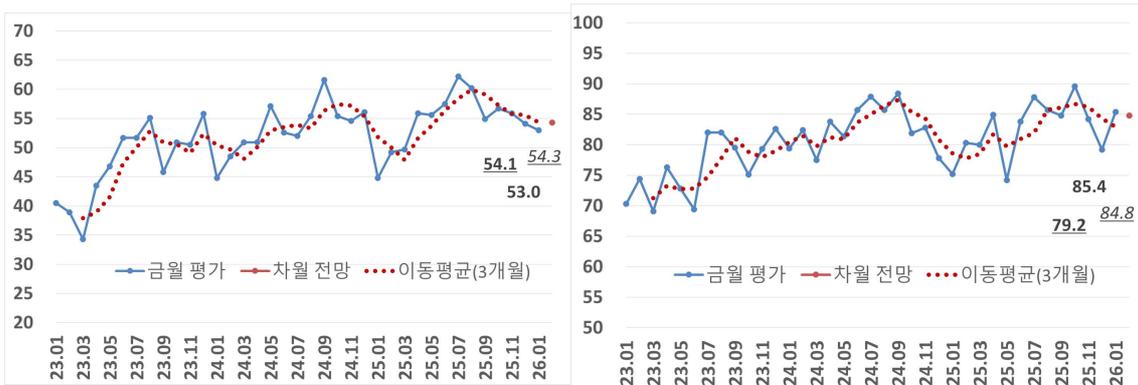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는 전월 수준, 자재수급지수는 상승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53.0(54.1→53.0)으로 전월과 사실상 동일했으며(-1.1p). 차월(54.3)에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1.3p). 다만 지역별로는 체감도의 차이가 적지 않았음.
 - 수도권(55.1→51.1)은 소폭 하락(-4.0p), 지방(53.6→53.8)은 전월 수준임(-0.2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5.4(79.2→85.4)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6.2p), 차월(84.8)에도 사실상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0.6p).
 - 수도권(73.5→77.8)은 소폭 상승(+4.3p), 지방(81.8→88.7)도 상승함(+6.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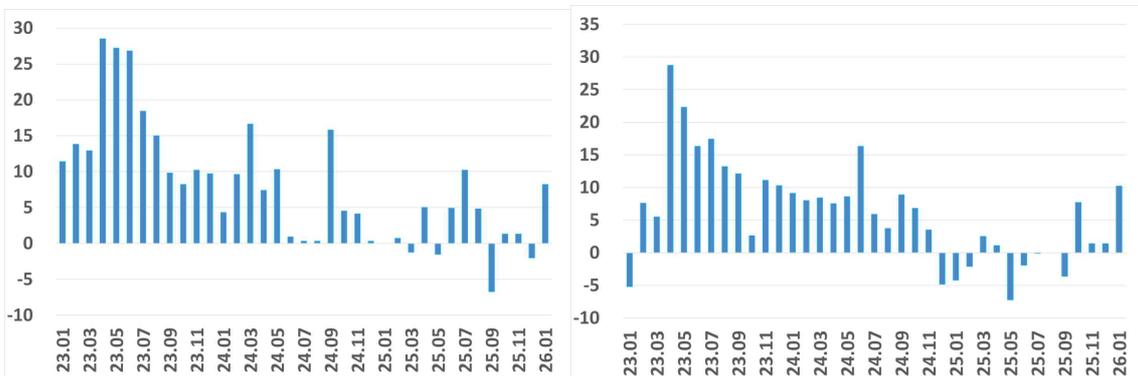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1월 평가	53.0	44.8	51.1	53.8	36.7	76.6
	2026년 2월 전망	54.3	46.7	46.7	57.5	40.0	72.3
자재수급	2026년 1월 평가	85.4	75.2	77.8	88.7	70	108.5
	2026년 2월 전망	84.8	72.7	73.3	89.6	63.3	112.8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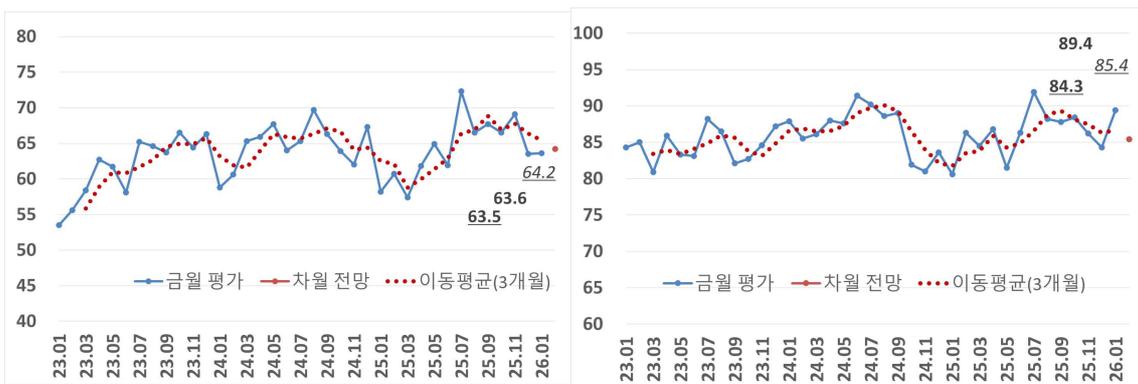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전월 수준, 장비수급지수는 소폭 상승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3.6(63.5→63.6)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며(+0.1p), 차월(64.2)에도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0.6p). 장비임대료의 경우에는 유가 등의 물가상승과 연결되기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은 사안임.
 - 수도권(63.3→64.4)은 전월 수준(+1.1p), 지방(63.6→63.2)도 유사함(-0.4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9.4(84.3→89.4)로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했지만(+5.1p), 차월(85.4)에는 다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0p).
 - 수도권(81.6→80.0)은 전월 대비 보험(-1.6p), 지방(85.5→93.4)도 상승함(+7.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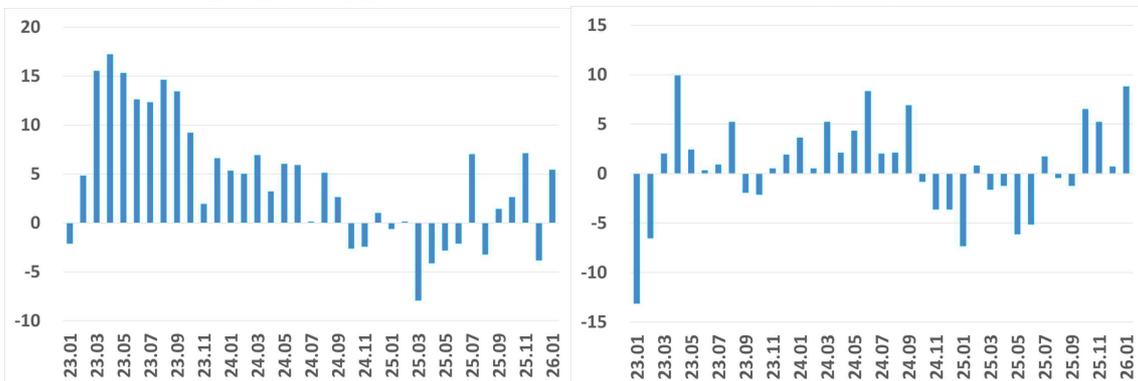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6년 1월 평가	63.6	58.2	64.4	63.2	53.3	80.9
	2026년 2월 전망	64.2	56.4	57.8	67.0	50.0	85.1
장비수급	2026년 1월 평가	89.4	80.6	80.0	93.4	73.3	110.6
	2026년 2월 전망	85.4	76.4	80.0	87.7	73.3	106.4



〈장비임대료 체감〉

〈장비수급〉



〈장비임대료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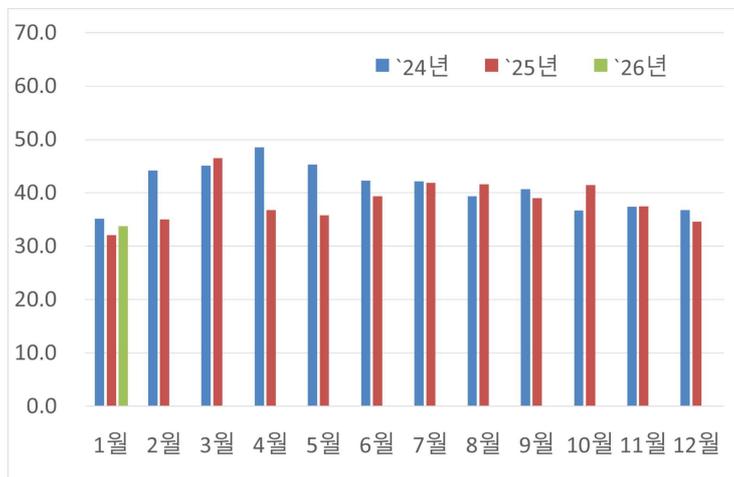
〈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6년 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3.8	32.1	46.7	28.3	36.7	46.8	
	차월 전망	44.4	38.2	48.9	42.5	36.7	57.4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34.4	37.6	55.6	25.5	60.0	42.6
		차월 전망	58.3	45.5	88.9	45.3	93.3	61.7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4.4	35.2	66.7	20.8	73.3	38.3
		차월 전망	55.0	40.6	91.1	39.6	93.3	59.6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48.3	49.7	57.8	44.3	56.7	55.3
		차월 전망	53.0	50.9	66.7	47.2	66.7	57.4
	자금조달	금월 평가	48.3	50.3	64.4	41.5	63.3	55.3
		차월 전망	52.3	50.9	66.7	46.2	66.7	61.7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1.6	56.4	60.0	62.3	50.0	87.2
		차월 전망	62.3	51.5	46.7	68.9	36.7	83.0
	인력수급	금월 평가	81.5	67.9	68.9	86.8	66.7	104.3
		차월 전망	78.1	63.6	66.7	83.0	66.7	100.0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3.0	44.8	51.1	53.8	36.7	76.6
		차월 전망	54.3	46.7	46.7	57.5	40.0	72.3
	자재수급	금월 평가	85.4	75.2	77.8	88.7	70	108.5
		차월 전망	84.8	72.7	73.3	89.6	63.3	112.8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3.6	58.2	64.4	63.2	53.3	80.9
		차월 전망	64.2	56.4	57.8	67.0	50.0	85.1
	장비수급	금월 평가	89.4	80.6	80.0	93.4	73.3	110.6
		차월 전망	85.4	76.4	80.0	87.7	73.3	106.4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